

Brilliant Ideas Episode #14: 티에스터 게이트

삶에 예술을 더하는 부동산 예술가



실천하는 예술가



예술을 우리의 생활과 무관하다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지, 방 한 칸을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품이라고 생각하듯 말입니다. 설치예술가이자 도시계획자 티에스터 게이츠(Theaster Gates)는 이런 예술에 대한 생각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시카고 일대에서 활동하는 그는 버려진 건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수준을 향상하는데

이렇게 그는 예술을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고, 우리의 일상을 더 활기차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프로젝트로 예술과 일상의 관계를 좁혔습니다. 실천하는 예술가 게이츠가 어떻게 예술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 여정을 블룸버그와 현대자동차가 준비한 Brilliant Ideas 열네 번째 에피소드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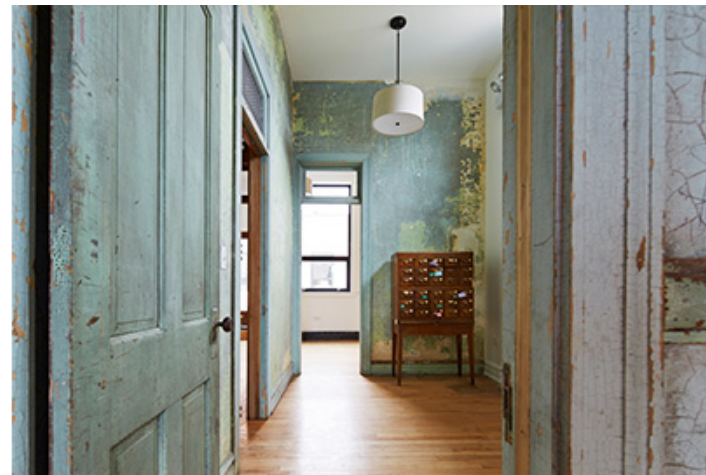
일조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과 같은 흑인 예술가들에게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예술



올가을 완공된 ‘스토니 아일랜드 아트뱅크(Stony Island Arts Bank)’는, 버려진 건물을 예술 공간으로 바꾸는 게이츠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6피트 정도의 물이 찬 채 방치된 은행은 누구의 관심을 받지 못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그였기에 시카고 시장 람 이매뉴얼(Rahm Emanuel)의 도움으로 은행을 1달러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에 있던 대리석 조각을 재활용해 ‘In Art We Trust’라는 문구를 새긴 100개의 사각 블록을 만들어 ‘2013 아트 바젤(Art Basel)’에서 5,000달러라는 수익금을 올렸고, 이를 기반으로 은행 재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은행은 전시장, 이벤트 장소, 도서관, 레코드 룸 등으로 구성된 종합예술공간으로 재탄생했고,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어 지역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스토니 아일랜드 아트뱅크’가 문을 열었을 때, 게이츠가 “이곳은 다음 세대 흑인 예술가들을 위한 예술적 실험공간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인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곳입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듯, 그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낡은 집 하나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Dorchester Project’(2006~)는 폐허로 방치된 건물을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게이츠의 대표 프로젝트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로 인해 미국의 많은 도시가 파산 위기에 놓였을 때, 그는 위기를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게이츠는 전 재산을 털어 시카고 서부의 작은 집을 구매한 후, “이것은 공연 예술입니다”라는 대사와 함께 빗자루질하는 행위예술을 진행해 이웃 주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폐공간은 무대공연, 전시, 이웃들과 간단한 저녁 모임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하나의 건물이 한 가지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약 매매 장소로 활용된 시카고의 한 창고를 구매해 지역민들과 연관 깊은 영화를 상영하는 ‘Black Cinema House’를 만들었으며, 한쪽에는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8,000개의 LP판으로 채워 명상과 예술적 활력을 느낄 수 있는 ‘Listening Room’ 등의 공간을 마련해 예술가와 지역주민의 소통에 앞장섰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부동산 예술'이라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로 지역이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를 추구한 것이며, 이런 환경 속에서 더 혁신적인 생각이 나타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흑인의 현실을 재고하다



많은 흑인 예술가들이 그러하듯, 게이츠에게도 '인종'은 자연스럽게 작품 소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게이츠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 시카고는 '흑인 대이동(Great Migration)'의 주요 목적지가 된 곳으로, 흑인 노동자에 관한 긴 역사를 지닌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을 두고 미국 내 인종 평등을 위해 진행되는 투쟁, 나아가 자유가 지니는 근본적인 의미를 시각적으로 탐구하며, 그 중심에는 노예, 노동, 시민권 투쟁 운동 등 흑인의 역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긴 소방 호스가 가득 쌓여있는 <In Event of a Race Riot>(2011-)은 흑인 학생들이 시민권을 위해 평화 시위를 했을 당시 그들을 무력으로 진압할 때 사용한 소방호스를 이용한 작품입니다. 당시 투쟁을 상기시키며, 동시에 여전히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종 관련 투쟁에 대해 관람객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장치입니다. 재활용된 나무로 제작되어, 마치 왕좌를 연상시키는 <Shoe-Shine>(2009)은 재료가 지닌 의미와 완성품이 주는 상반되는 시각적 이미지의 간극에서 흑인노예제도가 없어졌음에도 여전히 흑인의 프레임으로 남아 있는 시종이라는 역할과 시종드는 사람 그 자체를 조명해 노동에 대한 개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부터 게이츠가 이끌어온 'the Black Monks of Mississippi'는 흑인문화에 기반을 둔 음악적 퍼포먼스입니다. '뮤지컬 앙상블 적 실험'이라 묘사되는 퍼포먼스는, 흑인문화를 새로이 확산하며, 다른 문화와 혼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전통을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과 함께 선보입니다. 이 퍼포먼스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흑인교회 음악이 지닌 성향을 따르며, 엄격할 정도로 블루스 음악 형식을 고수합니다. 이는 게이츠가 블루스를 미국음악 전통의 가장 중요한 뿌리라 생각하고 흑인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에서 게이츠는 흑인의 역사와 현실을 비판하며, 그들이 지닌 전통성이 미국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재고합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자신과 같은 흑인 예술가들이 흑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게이츠는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다방향으로 적극 드러내며 인종을 넘어선 자신의 존재감을 펼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활동적 예술가입니다. ■ with ARTINPOST





Rebuild Foundation's Stony Island Arts Bank

Photo by Tom Harris © Hedrich Blessing Courtesy of Rebuild Foundation

Profile



티에스터 게이츠(Theaster Gates)는 1973년 미국 시카고 출신 설치예술가로, 현재 시카고 대학 비주얼아트 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조각과 도시설계를 학습한 게이츠는 도시 계획과 예술의 협업을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헌신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주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재료와 역사적인 오브제들로 작품을 제작하며, 사회적 책임과 깊은 신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게이츠는 소방호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작품 <In Event of a Race Riot>(2011-)을 통해 시민권 투쟁을 재고시켰습니다. 또한 현재도 진행 중인 그의 가장 야심 찬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The Dorchester Project'(2006~)로 생태 순환적인 예술을 선보이는데 그는 이를 '부동산 아트'라 부릅니다.

작품을 통해 삶과 예술을 친밀하게 만들고자 하는 게이츠. 건축가, 연구원, 퍼포머와 협업도 하는 게이츠는 이들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술을 선보이는 까닭에 '협업을 통한 평론'이라는 별칭도 지니고 있습니다.